

무용인의 표현력에 관한 경험적 의미 탐색*

김민지·박인자** 숙명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무용의 필수적 요소인 표현력에 대한 심층적, 구체적 관련변인과 의미를 탐색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 참가자는 판단표집법을 통해 무용공연과 창작 및 지도경험이 풍부한 무용수, 안무가, 무용 전공 대학 교수 등 10명을 선정하여 다양한 상황에서의 표현력에 관한 비 구조화, 반 구조화 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된 면담은 연구 참여자 별로 2회에 걸쳐 회당 최소 30분에서 최장 2시간가량이 소요되었으며, 전문가 회의를 통해 이 내용을 검증하고 정리하였다. 검증결과 의미형성과 주제묶음을 통해 5개의 대범주적 요인인 '드라마적 효과', '나만의 세상', '무용으로의 교감', '테크닉의 향유', '어우러짐'으로부터 '혼연일체', '자아의식의 초월', '내면의 파동', '열정', '사과의 확장', '원동력', '존중과 배려', '예술가와의 소통', '공감과 상호작용', '숙련과 성취', '타고난 예술인', '주변 환경', '인적 환경'의 13개 하위영역으로 범주화 되었다. 무용인들에게 있어서 예술적 감각이란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 뿐 아니라 연습과정에서 극중 배역의 감정에 몰입하여 혼연일체 된 최상의 상태를 경험하며 창조적인 표현 에너지로 발산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무용 표현력의 범주화된 요인들은 무용인들에게 감정의 세심한 변화와 감각의 새로움을 확장시켜주는 원동력으로 작용함이 확인되었다.

주요어 : 표현력, 무용인, 경험적, 의미, 탐색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는 IT 산업의 발전 속도가 점차 빨라지면서 수 만 년을 유지했던 기능적인 면의 형식지(形式知) 시대가 지나고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암묵지(暗默知) 시대가 싹트고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회에서는 I.Q가 높은 사람보다 E.Q가 월등히 높은 사람을 필요로 한다(경기신문, 2018.10.22). 또한 기존의 남성성과 여성성의 고정된 이미지와는 다르게 남자도 슬프거나 힘들 때 눈물을 참지 않고, 여자도 약한 마음을 눈물이 아닌 솔직한 표현으로 외치는 감성과 소통이 강조되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고미석, 2018.10.22).

인간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음성언어와 문자언어로 타인들과 감성, 감정을 소통한다. 예술가들 역시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을 배제시키거나, 융합하면서 타인들과 소통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예술표현 방법을 생성해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대의 예술은 결과보다 표현하는 행위 및 전달하고자 하는 과정 그 자체가 더 중요해졌다(조성진, 2013, p5). 특히 무용은 무대에서 신체의 미적 동작을 통해 무용수의 생각, 감정, 의도를 표현하는 총체적 예술이라 볼 수 있다(문영, 1999). 무용에서의 움직임은 신체 활동을 통해 창조된 역동적인 힘으로 무용수 내면의 감정, 체력, 테크닉, 신체조건 등과 조화를 이루어 자유롭게 표출해내는 것으로 이는 자기표현의 연장이다(강혜원, 2010; 흥연지, 2016).

* 본 연구는 제1저자의 박사학위논문 축약 본임.

** 교신저자 : 0426mjk@gmail.com

무용수뿐만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예술가로 태어났지만, 정작 예술가로 살 수 없다 보니, 대부분 그 같은 본성을 억누르며 살아가고 있다. 사람들은 예술가가 아닌 노동자로 살아가기에 일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할 수 없어 다른 영역에서 표현의 본성이 표출되기도 한다. 평범한 직장인은 주로 일터 밖에서 자신을 표현하지만, 스티브잡스와 같은 창조적인 직장인은 일터 안에서도 자신을 표현한다고 한다(김인수, 2018.10.22.). 이처럼 표현력은 다양한 상황 속 반복되는 연습으로 인해 생성되기도 하지만 표현하는 사람의 천부적으로 타고난 체격과 체력, 예술적 감각 그리고 심미적 표현 능력 등의 내·외적인 조건에 따라 드러나기도 한다(문영, 2008).

즉 무용에서 무용표현(dance expression)은 상징적인 의미, 인간의 사상, 감정 등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무용의 목적이 될 뿐 아니라, 무용의 기능, 가치 등의 핵심적인 부분과 결연되어 있어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춤은 무대의 목적에 맞는 아름다운 신체를 통한 최상의 표현으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무용에서의 표현이라는 단어는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작품 속에 내포된 다양한 의미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종종 한계에 직면하곤 한다. 즉 무용분야의 표현에서 다양한 예술적 경향, 관점 및 개념정리의 어려움, 문화적인 강령을 망라하는 서술적 용어 사용의 문제점 등이 지적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용은 항상 흐르고 움직이며, 그 움직임 속에 멈추고, 또 다시 흐르는 것과 같은 독특한 인간의 표현으로 무용의 중심이 되어 정의되어 왔다(박은성, 2010; 송수남, 2008). 이러한 무용은 미적 움직임을 통해 자신만의 예술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동기가 목표를 설정하는 원동력이 된다. 좋은 표현을 위해 아름다운 신체로부터 강한 체력, 화려한 기술, 다양한 감정 등의 내·외적 심리 요인들과의 조화가 공연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수행된다(김광범, 2007; Bompa, 1999). 더불어 지속적인 연습 과정과 개개인의 다양한 능력 및 경험을 통하여 보다 확장된 무용표현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

무용 표현력과 연관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강혜원, 이용현, 박승하(2011)는 무용 표현력을 동작표현기술, 외적표출능력, 창의적사고력, 표현열정 등을 표현력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도출한 바 있으며, 홍연지(2016)는 감정이입 능력과 무용 표현력의 관계를 규명하여 무용 표현력을 상승,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심층적인 이해를 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최청자, 김형남, 박은주(2015)는 신체훈련법(Bartenieff Fundamentals)을 접목시켜 움직임의 표현성 및 기능 확장성을 시도하였으며, 장정운(2015)은 상상력을 통한 무용 표현력의 가능성을 연구한 바 있다. 이처럼 무용 표현력의 그 중요성과 무용에서의 비중은 공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들은 아직까지 독자적인 학문체계로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이러한 표현의 의미에 관련된 몇몇 선행연구들도 무용의 근본적 목적이 되는 다차원적인 개념의 표현력 자체에 대한 연구가 아닌 정서 표출의 의미로 간주된 연구가 있을 뿐, 직접적인 표현 관련성에 대한 개념과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용인의 표현력에 대한 심층적, 구체적 관련변인과 그 의미 파악을 위한 심도 있는 질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는 무용인의 관점을 통한 표현력의 주관적, 개인적 경험을 심층 이해하여 표현력의 의미를 탐색하고 구조화, 정량화 하기위한 방향 제시에 도움을 주는 기초자료로 이용될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무용공연 및 창작 경험이 있고 서울 국내·외 무용대회에서 입상 경험이 있는 무용수, 다양한 공연작품을 통하여 안무경험이 풍부한 안무가, 무용 전공 대학교수 등 10명을 심층면담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선정은 질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비확률표집(non-probability)의 하나인 판단표집법(judgement sampling)을 채택하였다. 이 방법은 소수 대상으로부터 신뢰성(trustworthiness) 및 진실성(credibility)을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특히 무용 같은 특정상황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결과 및 의미 있는 자료를 구하는데 진실성의 측면이 강조되곤 한다(Patton, 1990). 본 연구에서의 연구 참여자는 무용에 입문한지 10년 이상인 무용인으로서 공연안무경험이 3회 이상이며, 활동경력이 5년 이상인 무용인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구분	성별	연령	전공	무용경력	직책
A	남	33세	발레	20년	무용수
B	여	38세	한국무용	18년	무용수, 안무가
C	남	35세	현대무용	17년	무용수, 안무가
D	여	65세	발레	52년	교수
E	남	39세	한국무용	24년	무용수, 안무가
F	여	32세	발레	22년	무용수
G	남	28세	현대무용	10년	무용수
H	여	43세	발레	30년	안무가, 강사
I	남	33세	한국무용	21년	무용수, 안무가
J	여	60세	발레	50년	안무가, 예술감독

2. 연구절차

이 연구에서는 무용인의 표현력에 대한 심층적, 구체적 관련변인과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질적 접근법에 대한 효율성을 고려하여 무용인들과의 토론을 거쳐 연구 참여자를 채택하였다. 예비 면접(pilotinterview)에서는 연구 참여자 이외의 무용수 겸 안무가를 겸직하고 있는 무용인을 포함하여 총 3명에 대해 실시하였다. 면담 내용의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한 예비 면담은 최종 면담을 위한 예행의 개념으로 심층면담의 실제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로부터 녹취한 내용은 전사 작업 하였다.

심층면담은 연구 참여자들의 표현력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비 구조화된 면담과 반 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2018년 4월 1일부터 5월 2일에 걸쳐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면담시간은 회당 최소 30분에서 최장 2시간정도 소요되었고 연구 참여자 별로 2회에 걸쳐 표현력 요인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다. 첫 번째로 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하여 다양한 경험을 진술하도록 하고, 두 번째로 무용인이 무대에 올라 춤을 추기 시작한 순간부터 무대를 내려오는 순간까지의 과정 뿐 아니라 춤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서 오는 표현력에 관한 구조화한 질문문항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3. 자료처리

질적 연구는 연구자가 인위적으로 연구 상황을 통제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현장 상황이 질적 연구 자료수집의 원천이 된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환경에 참여하거나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게 되며, 연구문제의 작성과 검증으로 이어지는 양적 연구와 달리 질적 연구에서는 귀납적 방법을 통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한다.

최종결과물 뿐 아니라 과정을 중요시하는 질적 연구는 사건의 과정을 조사하고 주도하는 연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연구 참여자의 관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참여자에게 결과를 보여주며 재차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에 주력하였다. 또한 자료수집과 해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각도분석방법인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을 이용하였다(김병준, 오수학, 2008). 무용과 교수, 안무가, 전문무용수 등의 심층면담은 구성원 간 검토를 실시하여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도 확보 및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이밖에도 현재 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및 무용 전공 박사학위소지자, 질적 연구에 대한 다수의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기록, 해석 단계에서 분석 및 해석 방법이 타당하고 신뢰성이 있는지 확인하여 연구자의 주관적인 관점과 편견을 최소화하는 과정을 추가하였다.

1) 전사 작업

심층면담 시 녹음기로 녹취한 자료를 있는 그대로의 언어적 표현을 옮겨져 기록하였으며, 녹취록에는 표현되지 않는 손짓과 표정 및 미세하고 섬세한 동작까지 전사작업 과정에 포함하여 기록하였다. 전사작업은 현장 상황을 사실 그대로 정확하고 의미 있게 전달하였으며, 텍스트의 분실을 예방하기 위해 USB, 외장하드, e-mail 등에 사본을 저장하였다.

2) 질적 연구 코딩

코딩은 주제별 약호화라고 부르며, 전사작업에 대한 드러내기 단계로써 단어, 구, 주제에 집중 한다. 코딩작업은 현장, 관점, 경험, 행동, 참여 등의 설명도식을 설정하고 자료 분석을 하는 방식, 분석 전 연구 주제에 맞게 부호화 작업을 행하는 과정, 그리고 귀납적으로 접근하여 코딩해나가는, 즉 사전에 코딩하지 않는 방식 등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김영천, 1997; 박종화, 2018; 이철원, 2013).

3) 질적 연구 범주화

질적 연구에서 가장 신중을 기울이는 중요한 단계 중 하나가 범주화이다. 범주화를 하는데 있어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질문분석(question analysis)을 실시해야 한다(이철원, 2013).

주제 분석에 있어 이를 추출하기 위해서 자료의 표면적 내용이 아닌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 내용의 분석은 면담 중 화제 거리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범주화를 이룬다. 따라서 화제 거리를 추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코딩작업을 통해 얻어진 화제 거리에 범주 명칭이 부여된다. 질문분석은 내용 분석과 유사하고, 연구자가 연구 환경 인지 및 현장파악이 잘 이루어졌을 때 적용할 수 있으며, 질문분석은 질문의 순서, 범주의 순서가 일치 할 수 있도록 수행한다.

4) 현상학적 탐구절차

Moustakas(1994)와 van Manen(1990) 그리고 Creswell & Plano Clark(2007)의 학자들은 현상학적 탐구의 절차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3명의 학자들의 탐구절차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연구주제설정, 팔호치기, 자료수집, 자료 분석, 글쓰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환원이라는 기저의 방법론에 유념하며 일반화할 수 있고, 현상학적 탐구방법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며, 수행하는데 있어 수집된 정보를 참고할 수 있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김영천, 2017).

5) 구성원간 검토

본 연구에서 신뢰도 검증방법 중 하나인 구성원간의 검토를 연구자의 주관적인 생각과 편견을 최대한 배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하였다. 구성원간의 검토는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부터 도출된 해석을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여 재차 점검하는 것을 의미한다(Guba, 1981). 본 연구에서는 무용을 전공한 전문무용수, 안무가,

대학교수 등의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성원 간검토가 이루어졌다.

첫째, 심층면담을 한 연구 참여자에게 초별 녹취된 내용을 청취하게 하여 면담 중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수정하고, 전사 작업 기록물의 정확성을 위해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을 묻고, 의도파악을 정확히 하여 검토하도록 하였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에게 범주화로 분류된 기록을 확인시켜 자료의 일치성을 확보하였다.

6) 전문가 회의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타당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자료 수집, 자료 분석, 전사 작업, 자료 기록, 자료 해석 단계에서 무용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 3명을 대상으로 회의를 실시하였다. 현재 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및 무용 전공 박사학위소지자, 질적 연구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며, 질적 연구를 다수 경험해본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전문가들과 함께 주 1회 1시간에서 2시간의 회의를 통해 본 연구자의 편견과 주관적인 관점을 최소화하고 수집된 자료의 분류별 요인설정, 범주화 설정, 개념화를 검증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무용인의 표현력에 관한 최적의 내용을 도출하려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4. 연구의 윤리성

심층면담을 진행하기 전, 연구 참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심층면담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고 동의를 얻었으며, 본 연구 이외에 다른 목적의 자료로써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함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가 의문을 가질 경우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과정을 거치며 연구를 이어 나갔다.

본 연구자의 편견 및 주관적 관점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전사 작업 기록물을 재차 확인하고 설명하며 재확인 및 검토가 이루어졌다. 모든 참여자들의 신변과 사생활 및 익명성을 보장하며, 심층면담을 통한 수집 자료는 절대적인 비밀보장을 할 것을 약속하였다.

Ⅲ. 결과 및 논의

1. 드라마적 효과

‘드라마적 효과’의 범주는 〈혼연일체〉, 〈자아의식의 초월〉, 〈내면의 파동〉의 3가지 중분류를 포함한다.

무용을 하는 순간에 표현되는 드라마적 효과는 무용에 대한 내적욕구의 표출로써, 내안에 다른 누군가가 공존하는 느낌으로 그 배역에 빠져 최적의 상태로 표현하는 것으로 춤과 내가 혼연일체가 되어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또 다른 형태의 드라마적 효과는 춤을 추는 동안 시간의 개념이 사라지는 절정의 경험으로써 감정의 정화로 느껴지는 새로운 발견인 카타르시스의 경험을 뜻한다.

구부정한 할머니가 나와서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도 그게 막 감동으로 와 닿는 것이.. 단순히 겉모습이 아름다워서 감동을 하진 않잖아요... 배역이 주어졌을 때 무용수가 최대한 그 배역에 맞춰서 표현을 한다는거죠.... 할머니의 주름진 표정, 구부정한 등 근육까지 하나하나... 그 과정을 거치려면 엄청난 고뇌와 힘든 여정이지만 그 배역이 나와지는 순간 온전히 그 속에서 합을 이루고 즐기게 되요.. 그러면 다양한 몸짓의 언어로 그 작품은 빛을 발하고 표현의 극대화를 나타내게 되요... (참여자 H)

무대에서 공연을 할 때, 테크닉, 표현, 감정 등이 딱 맞아 떨어지는 순간, 그 보이지 않는 스토리가 나에게 전율을 안겨줘요.. 찰나의 희열과 함께.... 나의 표현 에너지가 무대를 꽉 채우는 것을 넘어 관객에게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모두가 나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환상적인 춤, 절정의 표현을 경험을 하게 되죠.. (참여자 G)

참여자 H는 극중 배역에 완벽히 몰입하는 것은 흡수와 표출의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지만 내가 배역과 하나가 되는 순간순간을 느끼고 즐기며 표현하게 된다고 하였다. 참여자 G는 신체와 정신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찰나의 순간에 이르게 되고, 이 순간의 표현에서 희열이 온다고 하였다. 정병호(2004)는 무용수는 마음속 깊이 있는 혼에 집중할 수 있는 내면의 표현성을 중요시해야하며 이를 예술적 경지라고 하였다. 이처럼 무용수는 자신의 감정과 혼이 포함된 몰입경험을 통해 무대에서 자유롭게 춤을 추며, 이러한 표현력이 관객들에게 감흥을 줄 수 있게 되었을 때 색다른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라 사료된다.

무용 수행 시 집중의 단계를 넘어 최상의 상태를 경험하게 되면 극중 배역의 감정에 완벽하게 몰입하여 표현할 수 있게 되어 그 의미가 관객들에게 완전하게 전달된다. 이처럼 표현과 전달이라는 이중적인 목적을 무용수의 내면에 있는 감정을 통해 외부로 표출해내면 최고의 감동을 선사 할 수 있게 된다.

무용을 하면서 기본적인 것 이상으로 나만의 감정을 쏟아내는 드라마 발레에 요즘 더 빠져들게 되요... 무대에서 오로지 나의 춤으로 삶의 서사시를 표현하는 느낌이에요.. 너무 강렬하고 나도 모르게 처절함에 빠져서 내안에 분노를 표출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내가 또 있다는 느낌이 들어 묘하면서 이쁠려요... (참여자 A)

무용은 나에게 있어 활력소예요.. 나를 살게 해주는 것이 무용인 것 같아요.. 무용은 잠시나마 현실을 잊게 해주는 꿈의 나라로 갈 수 있는 동화 같은 세계가 되요... 그 후에 공연이 끝나면 오히려 박수 소리도 희미할 정도로 현실로 돌아오는데 오래 걸리죠.. (참여자 F)

참여자 A는 자신이 춤추는 동안에 내면 안의 또 다른 나와 만나며 잠재되어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발견하였다. 그 속에서 본인을 중심으로 흐르는 강한 에너지를 느끼며, 자의식을 초월하여 새로운 인물로 빠져드는 최적의 몰입 상태를 경험하였다. 참여자 F는 춤추는 동안 자신에게 몰입하여 상상속의 인물이 되어,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행복한 감정을 느낀다. 또한 몰입 상태에서 빠져있는 동안 무용을 하는 자신의 모습에 매료되어있다. 이처럼 무용수가 내면적 표현에 몰입하여 움직임의 수행할 때 나경아(2011)는 감정과 동작표현이 최고의 상태에 이르게 되며, 고착된 양식을 넘어 창조적인 표현 에너지가 발산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무용수에게 즐겁고 행복한 최적의 순간은 자신의 움직임을 통해 표현된 예술적 감성을 관객들이 함께 느끼고 동화되며, 공유하게 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무용수는 무대라는 공간 속에서 자신의 예술적인 끼와 감정을 드러내 보이며 이는 내면의 파동을 발생시킨다.

외국에 있는 동안 무용에 있어서 한국적인 것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너무도 막연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냥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안무자가 내면에서 가치를 찾고 고민하고 재미를 느끼며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의 느낌을 표현해냈을 때, 관객도 그 작품의 진실을 보고 함께 감동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죠.. (참여자 J)

직업 무용수를 꿈꿨기에... 순간순간 재미있고 내 꿈의 연장선이었죠.... 그런데 무용단 경력이 오래 되면 될수록 굉장히 자아실현이 안 되는 곳이 바로 직업 무용단인 것 같아요... 점점 타성에 붙어서 굉장히 수동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그쯤에는 점차적으로 만족감이 떨어지면서 자부심도 떨어졌어요.. 나만의 표현을 위한 뭔가.. 나의 내면의 떨림 같은 돌파구가 필요했어요... (참여자 B)

참여자 J는 낯선 환경 속에서 생각과 감정의 한계에 부딪치고 극복하며, 지금은 여러 가지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내면의 파동에 따라 진실 되게 표현할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를 갖게 되었다. 참여자 B는 항상 바라오던 무용수 생활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데 제약적이며 수동적인 행동 패턴으로 바뀌어 자신의 감정이 내면 안에서 심하게 요동치는 것을 느낀 후, 새로운 돌파구로 자신만의 표현 영역이 확장되는 안무자의 길로 들어섰다고 한다. 전미라(2010)는 무용인은 자신의 경험에서 창작적인 안무 소재를 찾고 다양한 이미지를 상상하며 시각화하여 표현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무용인 마음속에 그려둔 꿈에 더 가까워지거나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느껴지는 최적의 느낌이 다가온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최적의 느낌에 대한 적절하고 자연스러운 표현력이 바로 내면의 파동으로부터의 표출이 표현력으로 발휘 되는 순간이 되는 것이라 사료된다.

이처럼 내면의 파동은 무용 표현력에 있어서 새로운 시작점 혹은 전환점을 주어 표현력의 변화와 새로움을 더해주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2. 나만의 세상

‘나만의 세상’의 범주는 <열정>, <사고의 확장>, <원동력>의 3가지 증분류를 포함한다.

무용은 무용수의 몸과 마음으로 그리는 나만의 세상을 경험하게 한다.

그 세상에서 춤을 추는 것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열정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다. 자신의 예술적 재능이 빛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며 그 능력을 발휘하고 가능성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다.

나의 일상이 무용의 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나는 무용에 대한 열정이 넘친다고 생각 한다. 어떤 작품에 대해, 어떠한 배역에 대해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얼마만큼 표현을 해내야만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한테 필요한 힘은 뭘까?... 하고 목표를 설정하면 그 안에서 생각에 몰두하고 있는 열정적인 나를 발견하게 되죠. (참여자 H)

춤이 너무 좋아서 정말 물불 안 가리고 매일을 연습했어요.. 연습실에서 혼자 살다시피 할 정도로... 춤추는 순간만큼은 정말 안 되도 재밌고.. 쿵글도 재밌고... 춤추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고... 무릎이 아파도 좋고... 굴러다녀도 좋고... 난 춤쟁이에요.. (참여자 G)

춤이 너무 좋지만.. 깎 수 없는 그 벽이라는 게 너무 많이 있었던 거 같아요. 무용에 강박이 강해져 다시 해야만 되고 뭔가를 만들어내야 하고 항상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 열정은 있지만 강박도 같이 공존 했죠.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나의 춤이 완성 되어가고 있고 그걸 즐기고 있는 거 같아요... (참여자 E)

내가 춤에 빠져 있다고 느꼈던 순간부터 표현 자체가 다르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생각이 많을수록 고민이 많을수록 더 춤에 빠지게 되는 거 같아요... 근본적으로 빠져있을 때 이성보다 열정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에 간절함과 욕망이 내 표현으로 고스란히 드러나요... (참여자 I)

기본적으로 열정은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Maisel & Eric(2009)에 따르면 예술가는 엄청난 열정과 고된 노력으로 자신을 훈련하고 모든 것을 표현해낼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창의적이고 새로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참여자 H, 참여자 G, 참여자 E, 참여자 I 모두 열정이 중요한 부분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무용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생각만이 자신의 표현력을 향상시키고 춤의 완성도도 높인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열정에는 조화로운 열정만이 아닌 강박열정도 무용수의 실력을 상승시키는 중요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즉, 열정이 표현력 상승을 견인하는 중요 요인으로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라 사료된다.

무용은 무용수의 사고와 감정을 신체 움직임을 통해 표현하며 자신만의 언어를 만드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행위이다. 단순한 동작의 구성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움직임을 구상하고 만들어내는 창작의 과정이 필요하다.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기 위해 무용수들은 사고 범위를 확장하여 자신만의 뚜렷한 표현을 한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모든 게 다 나와서 전혀 새롭지 않아요... 근데 댄서들이 가지고 있는 질감적인 것이 똑같은 움직임을 다르게.... 아무래도 질감 자체를 연구하면 똑같은 동작도 질감이 바뀌고 그게 느낌도 바뀌어지고 그게 표현 자체도 바뀐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참여자 C)

가장 중요한 것인데 안무자가 얼마나 독창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느냐.. 왜냐하면 무용예술이라는 것은 인간의 몸을 매개로하고, 몸이 중심이 되어야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이 몸이 얼마나 다양하게 움직임을 만들어 내고...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움직임을 만들어 내느냐... 어떤 조합을 하느냐... 생각과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해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참여자 D)

무용인은 자신의 표현 의도가 관객들에게 정확히 전달되기 위하여 항상 고뇌하며, 무용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 또한 자기표현의 과정일 것이다. 참여자 C, 참여자 D는 기존의 수많은 움직임으로는 표현의 한계를 느끼며, 더 다양하고 새로운 주제와 의미를 찾고, 무대 위 도화지에 색채를 진하고 뚜렷하게 물들이기위해 발상의 전환을 한다고 진술하였다. 김정은(2007)은 무용수는 시·공간의 지각을 통해 정신과 몸이 하나가 되고 표현이 중심이 되는 자기 확신적 움직임을 토대로 창의성을 창출하게 된다 하였다. 독창적인 사고로 새로운 움직임을 만드는 과정은 늘 고통의 연속이며, 새로운 창작은 자신만의 개성적인 패턴을 탄생시킨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과정에서 무용인들의 생각과 이해의 폭이 넓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무용인의 삶은 끊임없는 노력과 수련의 과정이며, 무용인의 정신과 마음이 동일시 될수록 효율적이고 높은 수행력을 발휘하게 되고 춤이 빛나게 된다. 수련 과정이 고될수록 무대에 서는 순간에 가장 자신감이 넘치고 에너지 또한 전달되므로 고된 숙련 과정 자체가 성취의 원동력이 된다고 한다.

콩쿠르에서 무대에 처음 섰을 때도 그냥 편안했어요... 뭐랄까 워낙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자신감이 넘쳤다고 할까요?... 무대에 서는 순간 무언의 힘이 솟아난다고 할까요?... 정말 연습의 과정이 고될수록 무대에서 서는 것은 문제없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D)

계속 내가 무대에 오르고 싶은 이유... 관객들한테 박수 받는 희열! 주역 하루 올리려고 몇 달 동안 숨 가쁘게... 많은 연습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100% 몰입을 하고 연습했던 것을 막힘없이 한다면 관객들은 무조건 알아 줄 것이고 그 안에서 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참여자 F)

나는 각자 철학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하고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작품은 기가 막히게 뭐가 많아야 되는 게 아니라 심플하면서 거기에 의도를 다 담을 수 있는.. 진짜 그런 안무가는 대가라고 생각하죠. (참여자 J)

무용 수행에 있어 항상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반드시 필요한 요인으로 참여자 D는 자신감이 넘치는 무용인으로서 연습상황과 실재를 동일시할 정도로 수련 과정과 양을 중요시 하였다. 많은 연습이 전제가 된 경우, 무대를 즐기는 것은 감정에서 나오는 풍부한 상상력과 표현력이라 하였다. 무대라는 공간은 춤을 더 즐겁게 출 수 있는 무언의 힘을 주어 더 무용에 대한 자신감을 상승 시켜주는 것이라 사료된다. 참여자 F는 관객의 호응과 박수는 춤을 추며 자기표현을 계속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였다. 그만큼 무용수의 노력이 관객의 마음속에 파동을 불러오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생기고 피드백 되는 것이라 사료된다. 참여자 J는 자신만의 철학적 사상이 영감을 주어 자신을 계속 움직이게 하고 발전적이고 도전적인 사람으로 만드는데 힘을 주는 요소라고 하였다. 유진, 조경아(2010)의 연구에서는 무용수행시 불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심리학적 요인은 무용에 대한 노력, 열정, 자신감, 성취 등으로 발현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노력, 열정, 자신감, 성취 등은 무용수 표현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이러한 조화가 새롭고 창조적인 에너지를 만들어 춤에 대한 연구를 끊임없이 지속하도록 작용하여 순환시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 사료된다.

3. 무용으로의 교감

‘무용으로의 교감’의 범주는 <존중과 배려>, <예술가와의 소통>, <공감과 상호작용>의 3가지 중분류를 포함한다.

우리는 무용을 통해 모든 사람들과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며, 비언어적 교감, 즉 몸짓으로 표현하고 서로 소통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다양한 감정과 감각들이 교감 되어 심리적 유대감이 형성된다.

파트너와의 호흡은 굉장히 중요하고 예민해요. 어떻게 보면 몸을 터치하고 손을 잡고 사랑도 하고 또 막 배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기적인 것이라 딱같은 거죠. 파트너와의 호흡에서는 서로 간에 존중과 배려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없어서 버리면 질서가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A)

어떤 안무자랑 작업하느냐에 따라서.. 그 무용수가 계속.. 발전해나갈 수도 있죠. 무용수 자체로 굉장히 움직임과 표현력이 좋은 무용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작품에서는 빛을 발하지 못해요... 안무자 역시 무용수의 의견을 존중하며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작품의 완성도가 올라가기도, 떨어지기도 하니깐... 안무자와 무용수는 서로 간의 배려가 우선입니다. (참여자 E)

참여자 A, 참여자 E는 무용수와 무용수 간에 혹은 안무자와 무용수의 간에 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그들은 서로를 위해 내면의 따뜻한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관계로써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 비로소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다고 하였다. 고효영(2015)은 무용공연은 무용수와 관객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서로간의 감정 교감이 증진 되고, 공연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무용수와 관객, 안무자로 인해 그 공연은 공연의 막이 올라가는 순간순간마다 재탄생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내용을 지지하고 있다.

무용은 비언어적 몸짓의 소통을 통해 서로간의 감정을 표현하고 느끼며 하나의 흐름이 될 때 더 깊고 풍요로운 표현이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안무가는 작품을 만들고 무용수와 함께 작업을 해요... 모든 움직임에는 안무가의 소신과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야 해요..... 또한 무용수는 무대에서 직접 표현하는 만큼.... 안무자가 추구하는 움직임에 대한 표현력을 잘 끌어내야하는 것이 중요하고.... 안무자와의 대화를 통해...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끊임없이 고뇌하고 자신이 느껴지는 표현을 움직임에 담아내야하죠... (참여자 H)

표현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춤추면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지도자가 이끌어내는 표현력도 있으므로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피드백도 받아서 보완하여야 더 움직임과 표현의 질이 풍부해 진다고 생각되요... (참여자 I)

참여자 H와 참여자 I는 무용에 있어서 일방적인 것은 없으며, 서로 주고받는 상황의 소통이 이루어 질 때 움직임과 표현이 발전한다고 하였다. 최경희(2011)는 무용에서 소통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나의 이해관계 및 환경에 대한 소통을 포함하며, 몸의 움직임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나를 표현 하나?' 라고 스스로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이라 보고한 바 있다. 이처럼 소통이란 내용과 형식이 모두 갖춰진 올바른 소통이 매우 중요하기에 단순한 관계 형성이 아닌 무용수, 안무가, 지도자는 이상적의 소통 방법에 대하여 깊이 숙고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긍정적인 시너지효과를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 사료된다.

무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은 보고, 듣고, 마주하여 지각되는 것으로 감정이입을 통해 느껴진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바탕이 되며, 다양하고 새로운 표현을 생성해내는 효과로 피드백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무용수로서 공연을 올렸을 때 보다 안무자로서 받는 박수가 훨씬 더 기쁨이 크더라고요.. 왜냐면 무용수는 수동적이고 안무가는 능동적이에요.. 원하는건.. 관객과의 소통인데.. 나의 작품을 보고 생각했을 때 한 장의 사진처럼 떠올릴 수 있으면 나는 성공한 작품이라 생각했고... 그게 가장 기쁘고 가치 있던 순간이며 다음 작품의 표현에 참고가 되죠... (참여자 B)

표현이라는 것이 꼭 무엇을 표현해서 표현이 아닌 거 같아요... 예전에 바리시니코프의 삶을 반영한 것을 혼자 독백 하는 씬을 봤어요,, 무대에서 단순한 포즈 하나만 해도 그 감동을 어떻게 설명 하겠어요... 이런 모든 부분이 나의 표현력에 직, 간접적으로 양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참여자 J)

참여자 B는 관객의 박수갈채로 인해 새로운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피드백 되며, 직감적, 인지적 능력이 확대되어 표현력 향상을 도모하게 된다고 하였다. 참여자 J는 대가적인 안무가들의 작품을 통해 내적, 외적 측면을 인지하고 그들의 감성을 공유하여 좋은 양분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무용수와 안무가는 작품을 통해 자신만의 표현력 깊이를 찾고 그 속에서 새로운 표현을 생성하며 관객과 소통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과 상호간의 유기성 및 감정적 결부가 이루어져야한다고 하였다(손주희, 2008, 재인용). 이는 감정과 표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끊임없이 발전하고 노력하는 춤의 전 과정을 의미한다고 사료된다.

4. 테크닉의 향유

'테크닉의 향유'의 범주는 <숙련과 성취>, <타고난 예술인>의 2가지 중분류를 포함한다.

무용 수행에 필요한 기량은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수확일 수도 있으며, 본연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기량으로 테크닉의 향유이다. 타고난 기량과 노력은 자신만의 개성으로 독특한 표현이 되며, 이러한 표현은 자기만

의 색깔을 표출하는데 있어 꼭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라 사료된다. 이경희(2007)도 무용의 표현적인 면과 기능적인 면의 두 가지 측면이 서로 상호 보완될 때 건강한 정신과 신체의 합으로 아름다운 표현이 나온다고 보고 하였다. 이는 신체적 테크닉의 중요성과 함께 감정적 표현의 조화를 강조한 것이라 사료된다.

무용이란 걸 접하면서 제가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늙어 죽을 때까지 도를 닦는 거 같아요. 현란함에 빠져서 춤을 추지만 연습도, 공부도 정말 많이 해야 되고, 작품을 잘 창작해야 되고, 멋지게 움직여야 되니까... 그리고 깨달음이 깨지고 다시 깨닫게 되고 이런 직업이라고... (참여자 C)

한국무용 선생님들의 시선하나 손끝하나를 이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서른쯤부터 관점도 바뀐 거 같아요... 그러면서 연습하는 방법과 안무하는 과정에서도 다양성을 두고 움직임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큰 산을 넘은 것 같은 뿌듯함과 만족스러움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참여자 I)

참여자 C는 좋은 무용수가 되기 위해 항상 도를 닦는 마음으로 연습한다고 하였으며, 무용은 다양한 경험이 필수조건이고 개인의 노련미와 노하우에 따라 자기가 표현 할 수 있는 범위가 풍성해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성취감이 생기고 만족감이 느껴져서 한계에 부딪쳐도 계속 반복적으로 숙련하고 성취로 이어지는 것이라 사료된다. 참여자 I는 스승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이 자신에게 훌륭한 메소드가 되고 새로운 방법을 구축하고 성취해내는데 필요한 자산이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참여자 I는 작업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현의 느낌을 얻고자 계속해서 노력해 나아가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이라 사료된다. 김현숙, 표내숙(2009)은 무용예술이 자신의 철학적 사고와 몸을 매개로만 동작의 움직임을 표현하기에 많은 노력과 연습을 통해 땀을 흘려왔는지 가늠할 수조차 없는 경이로운 느낌이라 하였다.

무용인의 타고난 재능은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바를 자기만의 느낌으로 모두 표현 할 수 있는 용기와 남다른 자신감, 그리고 무용 수행 시 누구보다 뛰어난 테크닉이 모두 중요한 요인이며 이를 다 갖추어야 진정한 예술인이라 할 수 있다.

무용을 아무리 잘 해도 감정이 없는 무용수는 안 뽑아요. 무대 있을 때 그 사람에게서 뿔어져 나오는 아우라가 있어요. 희한하게 존재감이 드러나는... 예를 들어서 파리 오페라 무용수였던 오렐리 듀퐁(Aurelie Dupont)은.. 키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무대에서 보면 사람이 달라져요... 또 발레리나 김지영씨 같은 경우에도... 드라마를 진짜 잘 표현해요. 무대에서 자신만의 끼를 표출하죠.. (참여자 J)

참여자 J는 무용인으로서 남다른 느낌이 중요하며, 최고 수준의 예술인에게는 연습으로 도달할 수 없는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해주(2012), 문영, 오레지나(2012)는 타고난 잠재적 재능을 가진 무용수는 공연이나 어떤 특정 상황 등에서 자신의 체격과 체력으로 남들과 달리 능숙하게 무용동작 기술을 수행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표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예술적 감각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부분이 커서 연습으로 만들고 표현하는 과정도 뛰어넘는 것으로 타고난 예술성은 본인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함께 신뢰를 높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상의 수행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고 사료된다.

5. 어우러짐

‘어우러짐’의 범주는 <주변 환경>, <인적 환경>의 2가지 중분류를 포함한다.

무용이라는 예술은 다른 환경적 요소와 어우러지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무용은 몸짓으로 수많은 감정을 표현하고 공유하므로 말로써 전달하는 표현력보다는 제약이 따르게 되며 원활한 의미전달을 이루기 위해서는 환경적 요소들이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 함께 땀 흘리며 연습해온 무용수들, 감정을 교감하는 관객을 포함하여 춤이 내포하고 있는 움직임의 의미 전달을 위해 필요한 요소인 음악, 무대구성 등이 하나를 이루게 되면 그 안에서 시너지가 발휘된다.

무용예술이 극장예술이잖아요?.. 일단 극장예술에서 중요한 의상, 조명, 무대미술이라든지.. 일단 작품을 봐야 하는 게 우선이지만.. 춤만 보는 게 아닌거죠... 음향적인 것들을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전체의 조화가 어떻게 돼 있느냐.. 어떤 새로운 시도가 있었느냐.... (참여자 E)

음악은 무용에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고도 큰 힘을 가졌어요... 음악이 작품을 더 빛나게 할 수도 있고 좋은 작품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져 엄청난 감동을 선사하기도 하죠.. 나는 음악에 애착이 커서 음악을 듣고 느껴지는 모든 것을 표현하면 같은 작품, 같은 역할을 해도 자신만의 느낌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리게 되요.. (참여자 D)

무대에서는 강한 조명으로 인해서 객석이 보이지 않고... 심지어 다른 무용수의 움직임이 조명에 반사되어 흐릿하게 보였던 적이 있었어요.. 조명으로 인해 나의 춤이 관객에게는 돋보이나... 막상 춤을 추는 무용수는 눈부심을 감수하고 온전히 나를 느끼며 표현해야 하죠... (참여자 G)

참여자 E, 참여자 D, 참여자G는 무용수로서 무대서는 것만이 아닌 주변의 어우러지는 환경인 무대구성, 조명, 음악, 영상 등으로 무용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통해 감수성이 상승한다고 진술했다. 이는 박소영(2010)연구에서도 무용수가 자신을 온전히 표현하는 곳인 무대는 공간이 한정적이며 일정한 시간과 범주 안에서 관객과의 소통에 제한적인 특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공연이 수행될 때 음향효과와 조명 등은 무용 표현에 있어 관객과의 교감을 원활하게 해주는 매개체가 될 뿐 아니라 감동을 극대화 하는데 에 기여하게 된다. 이로부터 표현을 풍요롭게 하는 직·간접적인 영향력도 증가 하고, 새로운 창조적 힘 또한 발휘될 것이라 사료된다.

예술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단연 무용수라 할 수 있으며 무용수의 내면에 있는 사상과 감흥의 표현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무용수의 표현은 안무가의 의도와 무용수의 감정을 잘 연결해서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가장 중요한 건 주역 무용수만이 느끼는 부담감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코르드가 아무리 잘해도 주역 무용수 하나가 이 흐름을 끊게 되면 이 전체의 작품이 망해버리기 때문이죠.. (참여자 A)

무용은 실수로 인해 공연을 망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늘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다 각자만의 징크스를 가지고 있죠.. 저는 공연이 있는 날에는 무조건 아끼고 맘에 들었던 토슈즈를 신어요... 중요할 때 나에게 힘을 실어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신어요... 그러면 뭔가 안심이고 좋은 표현을 하는데 거리낌이 없게 되죠... (참여자 F)

저는... 무대에 오를 때 꼭 헤어는 먼저... 분장은 마지막 순서로 해야 마음이 놓여요.. 머리를 정갈하게 잘 묶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죠.. 또.. 분장을 한 후.. 내가 극중 인물로 변신해 있는 모습을 보면 자신감이 생겨 눈빛에서부터 내가 하고자하는 표현이 드러나요.. 그 에너지를 받아 발 디딤과 손끝의 디테일한 표현도 더 풍성해지죠... (참여자 B)

참여자 A는 좋은 작품을 이끌어 나가고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군무를 하는 무용수들에 비하여 주역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는 단순히 극중 배역의 역할로 인한 분량의 차이가 아닌 주역무용수가 이끌어가는 독특한 에너지와 중량감으로부터 서로 융화되어 하나의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내는 중심점이 되는 것이라 사료된다. 참여자 F와 참여자 B는 자신의 자유롭고 극대화 되는 표현력을 위해 토슈즈, 헤어, 메이크업이 중요한 요소임을 확신했다. 박소영(2010)의 연구에서는 무용수는 무대에서 작품의도에 맞게 호소력 있는 표현을 해야 하며, 이 효과를 돕는 요소로 분장을 언급한 바 있다. 무용수는 극중 인물로 변신하면서 분장을 통해 외형적인 여건을 충족시켜줌으로써 관객으로 하여금 보다 더 극대화된 무용수의 표현에 몰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문영(1999)은 무용공연은 무대라는 공간속에서 그동안 노력해온 연습의 결과를 예술적 동작표현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무용공연이 내포하는 인적 환경에 관객의 존재를 덧붙인 바 있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혼연일체, 자아의식의 초월, 내면의 파동의 드라마적 효과범주, 열정, 사고의 확장, 원동력의 나만의 세상범주, 존중과 배려, 예술가와의 소통, 공감과 상호작용의 무용으로의 교감범주, 숙련과 성취, 타고난 예술인의 테크닉의 향유범주, 주변 환경, 인적 환경의 어우러짐범주로 체계화되었으며, 아래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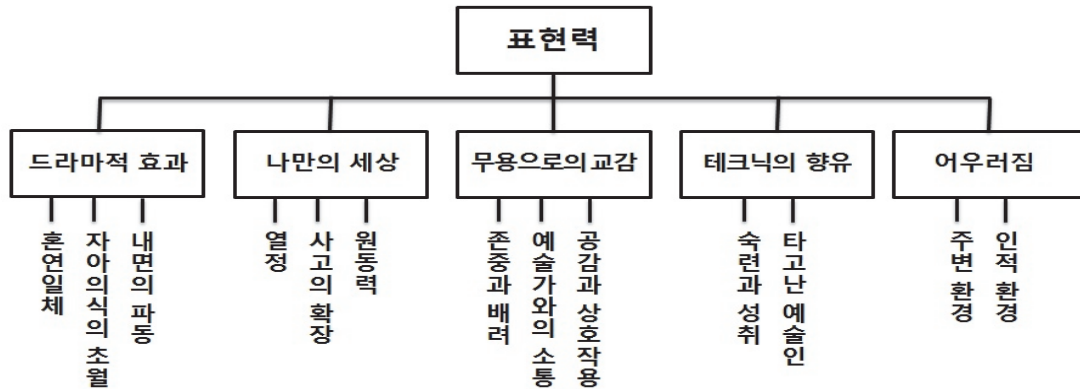


그림 1. 표현력의 분류체계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무용인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무용의 필수적 요소인 표현력에 대한 심층적, 구체적 관련변인과 다채로운 특성 및 의미를 탐색하는데 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심층적인 면담에서는 무용수, 안무가, 대학교수 등 무용인 10명의 참여자를 선정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비구조화와 반구조화 형식을 혼합한 면담을 실시하여 무용인의 다양한 표현력 요인을 추출하고 범주화하였다.

이상의 연구방법 및 절차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드라마적 효과, 나만의 세상, 무용으로의 교감, 테크닉의 향유, 어우러짐의 5개의 대분류와 혼연일체, 자아의식의 초월, 내면의 파동, 열정, 사고의 확장, 원동력, 존중과 배려, 예술가와의 소통, 공감과 상호작용, 숙련과 성취, 타고난 예술인, 주변 환경, 인적 환경의 13개의 중분류로 범주화 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과정에서 도출된 의미 있는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무용인의 표현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회심리적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다양한 훈련을 통한 현장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무용 표현력에 대한 독자적 연구 자립을 위해 심도 있는 질적 연구가 지속되어 무용 표현력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의 확보 및 학문적인 자립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차후연구에서는 연구영역 체계 확립을 위해 다른 예술 분야에서와 차별화되고 무용의 특성에 적합하면서도 광의적 함의가 담긴 표현력 측정 도구의 개발 및 상향발전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 무용 표현력에 대한 지식체 형성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혜원(2010). 무용표현의 결정요인에 관한 경험적 탐색.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강혜원, 이용현, 박승하(2011). 무용표현력의 구성요인 탐색. 한국체육학회지, 50(6), 249-259.
- 고미석 (2018.10.10.) 고미석 칼럼 우는 남자(Electronic version).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81010/92324995/1>
- 고효영(2015). 무용공연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증진을 위한 『어울, 흥담』의 창작과정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 교육현장에서 웨트웨어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2018.09.18.). 경기신문, P. 17.
- 김광범(2007). 무용 전공학생들의 참여동기 측정 도구 개발 및 참여동기요인 비교·분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김병준, 오수학(2008). 체육학 연구방법 3탄. 레인보우북스. 서울.
- 김영천(1997). 학교 교육현상 탐구를 위한 질적연구의 방법과 과정. 교육학연구, 35(3), 135-170.
- 김영천(2017). 질적연구방법론 II: Method. 아카데미프레스. 경기.
- 김인수 (2018.10.22.) 일을 통해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일터를 찾아야 창조적이고 행복해진다(Electronic version). 매일경제. <https://www.mk.co.kr/opinion/columnists/view/2018/09/580348/>
- 김정은(2007). 들뢰즈의 생성론에 근거한 무용에서의 신체 지각방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해주(2012). 무용전공자의 완벽주의 성향이 자아존중감 및 무용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 김현숙, 표내숙(2009). 직업무용수들의 자기관리 특성. 체육과학연구소 논문집, 25(2), 1-10.
- 나경아(2011). 무용심리학. 보고서. 서울.
- 문영(1999). 무용 심리학. 보경문화사. 서울.
- 문영(2008). 무용능력검사개발을 위한 무용수행능력의 요인구조 탐색 연구. 한국무용과학회지, 17, 1-16.
- 문영, 오레지나(2012). 무용수행능력 검사 개발.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3(1), 195-212.
- 박소영(2010). 무용공연의 성격에 따른 무대분장 표현에 관한 고찰 : 모던발레 [신데렐라]의 두 버전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 박은성(2010). 가면이 무용의 표현성 확대에 끼치는 영향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박종화(2018). 무용전공대학생의 정서와 무용열정이 자기관리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57(1), 435-445.
- 손주희(2008). 무용수의 관객인지에 따른 상태불안 및 공연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교.
- 송수남(2008). 예술과 인간의 가치. 도서출판 금광.
- 유진, 조경아(2010). 무용 재능발달 척도 개발 및 구조적 타당화 검증. 한국체육학회지, 49(6), 549-559.
- 이경희(2007). 바티니에 기본원리(Bartenieff Fundamentals)가 무용치료사의 신체지각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이철원(2013). 여가학의 질적연구방법론. 레인보우북스. 서울.
- 전미라(2010). 전문 무용인의 행복감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장정윤(2015). 무용의 상상력과 표현. 韓國舞踊教育學會誌, 26(4), 45-63.

- 정병호(2004) *한국무용의 미학*. 집문당. 서울.
- 조성진(2013). 예술표현 방법의 문화교차적 변화양상과 의미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 최경희(2011). 사회적 소통으로서 무용교육의 힘. *한국예술연구학회*, 3, 85-10.
- 최청자, 김형남, 박은주(2013). Bartenieff Fundamentals 활성화 프로그램이 현대무용 전공대학생의 무용표현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과학회지*, 29, 91-108.
- 홍연지(2016). 직업무용수들의 감정이입 능력이 무용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 무용몰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Bompa, T. O.(1999). *Periodization: Theory and Methodology of training* (4th Ed). Champaign, Illinois: Human Kinetics,
- Creswell, J. W. & Plano Clark, V. L.(2007). *Designing and Conducting Mixed methods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 Guba, E.(1981). Criteria for Assessing the Trustworthiness of Naturalistic Inquiries, *Educational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29(2), 75-91.
- Maisel & Eric(2009). *마르지 않는 창의성 : 예술적 재능과 성공을 위한 창의성 훈련 코칭*. 도솔. 서울. 임경아 역.
- Moustakas, C. (1994).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Thousand Oaks, CA: Sage.
- van Manen, M. (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ABSTRACT

Empirical Meaning Search to the Expressiveness of Dancer*Kim, Min-Ji · Park, In-Ja Sookmyung Women's Univ.*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ssential elements of dance expressiveness, in-depth a concrete relevant factors and meanings of expression. Through the Judgment Sampling, the participants selected 10 dancers, choreographers, and university professors with extensive experience in dance performance, creative and coaching, and conducted non-structured and semi-structural interviews on expressiveness in various situations. Interviews conducted in this study took at least 30 minutes to up to 2 hours per session for each study participant, and this was verified and arranged through expert meetings. After the analysis, this study categorized the elements in 5 large classifications of dramatic effect, dancer's own world, communication through dance, enjoyment of technique, and harmony and 13 middle classifications of unification with dancing, transcending self-consciousness, inner wave, passion, expansion of thinking, driving force, respect and consideration, communication with artists, sympathy and interaction, adeptness and accomplishment, born artist, surrounding environment, and human environment. For dancers, artistic sense is not only inherently capable but also immerse in the emotions of the role in the practice process, experiencing the best condition of the mixed up, and radiating with creative expression energy. The categorised factors of dance expressiveness derived from this study have been identified to act as a driving force for dancers to extend the delicate changes of emotion and the novelty of sensations.

Key words : Expressiveness, Dancer, Empirical, Meaning, Search

논문투고일: 2019. 08. 31
논문심사일: 2019. 10. 08
심사완료일: 2019. 10. 08